

20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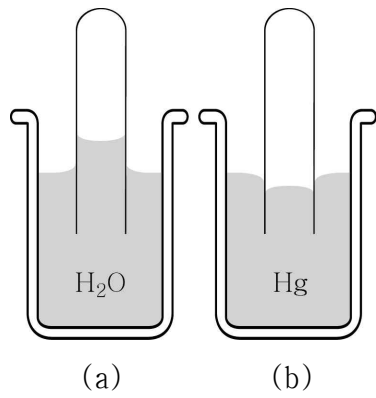
나는 행동이 사람의 생각을 가장 훌륭하게 해석해 준다고
를 생각해왔다.

- 존 로크

국어 영역

[1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관을 <그림>의 (a)와 같이 물(H₂O)에 넣으면, 물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어 올라가고 유리관 내의 수면은 오목한 모양을 띠게 된다. 반면 <그림>의 (b)와 같이 유리관을 수은(Hg)에 넣으면, 수은은 유리관 안쪽에서 내려가고 유리관 내의 수은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그림>

유리관 안의 액체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두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응집력은 한 물질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입자들이 서로 모이려는 힘을 뜻하고, 부착력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해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뜻한다.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는 물과 유리관 안쪽 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물의 응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리관 안쪽 면에 붙는 물 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물기둥이 올라간다. 반면 유리관을 수은에 넣었을 때는 수은의 응집력은 수은과 유리관 안쪽 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수은 입자들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수은 기둥은 아래로 내려간다.

한편 액체의 입자들이 모이려는 힘인 응집력은 표면 장력이라는 힘으로 나타나 액체 표면의 모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공기와 맞닿아 있을 때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말한다. 액체 내부의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이 작용하는 반면 액체 표면의 입자들은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나머지 방향으로만 인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액체는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부피이면서 표면적이 최소로 되는 기하학 구조는 구이기 때문에 액체의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의 수면이 오목한 모양을 띠는 것은 물과 유리관의 부착력이 물의 표면 장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리관을 수은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의 수은 표면이 볼록한 모양을 띠는 것은 유리관과 수은의 부착력보다 수은의 표면 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이 액체 표면의 모양을 볼록하게 만든다.
- ② 액체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을 받는다.
- ③ 유리관 안의 액체 이동은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두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 ④ 수은의 응집력은 수은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보다 강하다.
- ⑤ 응집력은 한 물질 내에서 입자들이 서로 모이려는 힘이다.

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가) 비누를 녹인 물과 순수한 물에 동일한 유리관을 각각 넣은 다음 물기둥의 높이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누를 녹인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가 순수한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보다 낮았다.
- (나)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깨끗한 유리 표면에 각각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 결과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에는 볼록한 물방울이 맺혔으나, 깨끗한 유리 표면에는 물이 넓게 퍼졌다.

- ① (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비누를 녹인 물은 순수한 물의 경우와 달리 물의 응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겠군.
- ② (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비누를 녹인 물의 입자들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이 순수한 물의 입자들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보다 강하기 때문이겠군.
- ③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이 깨끗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보다 약하기 때문이겠군.
- ④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떨어뜨렸을 때에 비해 물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겠군.
- ⑤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방울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보다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겠군.

[3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에서 우리는 별개의 대상을 같은 이름으로 ㉠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것들이 무엇인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옆집에서 키우는 ‘진돗개’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치와와’를 생김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라고 부른다면, ‘개’라는 이름이 뜻하는 그 무엇, 즉 ‘개’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속성을 ‘진돗개’와 ‘치와와’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둘 모두를 ‘개’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개념이 범주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개념과 범주는 무엇일까? 개념은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을 말하고, 범주는 같은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개념은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포는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필연적 성질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생물이라는 말의 경우 ‘생명을 가지고 생활 현상을 영위하는 존재’가 내포가 된다. 반면 외연은 그 개념이 ㉡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전체의 범위를 가리킨다. 생물이라는 말의 외연은 생물이라는 개념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전체, 곧 동물, 식물 등이 된다. 이는 외연이 범주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범주화란 특정한 사례가 특정한 범주의 구성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부분 집합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범주화는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하위 범주인 ‘작은북’은 상위 범주인 ‘북’의 부분 집합이 되며, ‘북’은 보다 높은 상위 범주인 ‘타악기’의 부분 집

국어 영역

합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변별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만일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경험을 개별적인 속성에 기초해서 독특한 것으로 지각한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에 ㉔압도당할 것이며, 접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접하는 모든 대상들을 그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같지 않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다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범주화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물이나 현상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 사물이나 현상들과 관련 있는 이후의 일들을 ㉔예상할 수 있게도 해 준다. 예를 들어 '침엽수'가 침 모양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며, 건조와 추위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을에 여행을 가서 침 모양의 잎사귀를 가진 나무를 본다면, 그는 그 나무를 침엽수로 범주화하여 그 나무가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잘 견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주화는 인류가 오랫동안 지식을 ㉔축적해 온 방법으로 유용한 도구이지만 범주화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성급하게 범주화하여 오만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범주화의 다양한 종류
- ② 범주화의 위계적 성격
- ③ 내포와 외연의 의미
- ④ 개념의 범주화 기능
- ⑤ 범주화의 유용성

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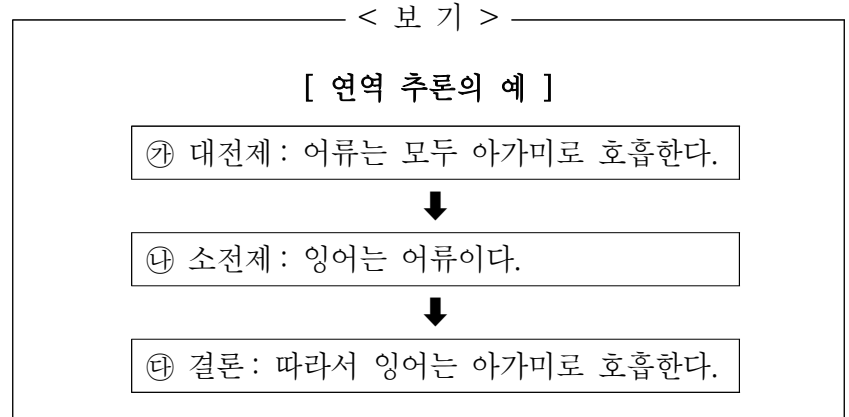
ㄱ. A는 곤충이 다리가 세 쌍이며 거미는 다리가 네 쌍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거미를 보고 거미와 곤충의 유사한 모습에만 주목해 거미가 곤충에 속한다고 말했다.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B는 그 말을 듣고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고 A에게 알려 주었다.

ㄴ. 유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그림을 보여 주며 어떤 그림을 봤는지를 외워 보라고 했다. 유아들은 그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외운 반면, 청소년들은 그림들을 '과일', '꽃', '가축'으로 나누어 외웠다.

ㄷ. C는 수업 시간에 영상물을 통해 기도가 막혔을 때의 응급 처치 방법을 배웠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C는 영상물에서 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다. 그 덕분에 그 친구는 무사했다.

- ① ㄱ에서 A는 거미가 지니고 있는 곤충과의 유사한 모습에 주목하여 범주화했겠군.
- ② ㄱ에서 B는 거미의 개념과 관련해 곤충과 구별되는 거미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잘못 범주화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겠군.
- ③ ㄴ에서 그림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유아들'이 제시된 그림들을 모두 기억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겠군.
- ④ ㄴ에서 '청소년들'은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각각의 그림 속 대상이 지닌 독특한 고유의 특성에 주목해 외웠겠군.
- ⑤ ㄷ에서 C는 '친구'가 숨을 못 쉬게 된 것을 기도가 막혔을 때의 증상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군.

5.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㉔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것은 '어류'의 외연에 해당한다.
- ② ㉔은 '어류'의 모든 내포가 '잉어'의 모든 내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범주화한 것이다.
- ③ ㉔은 '어류'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속성이 '잉어'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도출되는 것이다.
- ④ ㉔과 ㉔이 각각 대전제와 소전제가 되는 것은 '잉어'의 외연이 '어류'의 외연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⑤ ㉔에서 '잉어'는 '어류'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㉔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6. ㉔ ~ ㉔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 ② ㉔ : 가리켜 보임.
- ③ ㉔ :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함.
- ④ ㉔ :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됨.
- ⑤ ㉔ :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김.

국어 영역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물어 오는 육교 우에
한 줄기 황망한 기적을 뿌리고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밀물 우에 갈매기떼 우짚는
 바다 가까이
 정거장도 주막집도 헐어진 나무다리도
 온-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고향**

산도 마을도 포플라 나무도 고개 숙인 채
호젓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그 곳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에워싸고
 해마다 가난해가는 **고향 사람들**

낡은 비오롱*처럼
 바람이 부는 날은 **서러운** 고향
 고향 사람들의 한 줌 희망도
 진달래빛 노을과 함께
 한 번 가고는 다시 못 오기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 기대어 서서
 내 생각하고 **눈물지움**도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

- 김광균, 「향수」 -

* 호젓한: 쓸쓸하고 외로운.

* 비오롱: 바이올린.

(나)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밤 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의
 퍼렇게 멎든 날갯죽지가 떨어져 있다.
 어린 날 뒤울안에서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비칠비칠 아직도 거기
 남아 빛나고 있다.

심청이네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심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꼬들꼬들 즐고 있는 뒷마루 끝에
 개다리소반 위 비인 상사발*에
 마음만 부자로 쌓여주던 그 햇살이
 다시 눈뜨고 있다, 다시 눈뜨고 있다.
 장승상네 참대밭의 우레 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내 어린 날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발가벗은 햇살의 그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며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저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 서 보이고 있다.
 - 나태주,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

* 상사발: 품질이 낮은 사발.

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연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통해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확장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8.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젓한’, ‘서러운’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노출되고 있다.
- ② ‘한 줄기 황망한 기적’과 ‘낡은 비오롱’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에는 ‘눈물지’을 수밖에 없는 화자의 비애감이 집약되어 있다.
- ④ ‘언제 꺼질지 모르는 /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통해 ‘고향 사람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저무는 도시의 옥상’은 화자의 현재 위치를 드러내는 시공간적 배경으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9.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케네스 버크는 문학적 소재를 크게 ‘내적 소재’와 ‘외적 소재’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 의미를 지니게 된 소재라면, 후자는 잘 알려진 역사나 고전에서 선택된 소재를 의미한다. (나)는 ‘대숲바람 소리’를 중심으로 제시된 내적 소재들과 「심청전」에서 가져 온 외적 소재들이 절묘하게 접목되어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어린 시절과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심청’이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품었던 희망이 화자 자신의 어린 시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는 아픔 속에도 희망이 존재하며, 상처마저도 그리움과 추억이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 ① 어른이 된 화자가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과거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군.
- ②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 속에 ‘초록별의 멎든 날갯죽지’와 ‘눈물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숲바람 소리’가 환기하는 정서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 할 수 있군.
- ③ ‘심청’이 ‘심봉사’를 혼자 남겨 두고 ‘빌어먹으러’ 나갔을 때의 장면이 외적 소재로 제시되어, 화자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군.

국어 영역

- ④ 외적 소재와 내적 소재가 접목되면서, ‘심청’이 지녔던 희망이 자신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이 ‘그 햇살이 / 다시 눈트’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⑤ 외적 소재를 통해 내적 소재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고통마저도 ‘햇살’이 되었던 어린 시절을 외면해 온 화자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발가벗은 햇살’에 투영되어 있군.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현세는 셋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인 두갑이는 어떤 집의 주인이 셋방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그들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서, 현세가 그 집을 구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 준다면 그 대가로 방을 내어 줄 것을 약속한다. 고민 끝에 현세는 집을 구매하는 척하여 결국 사람들을 내쫓고, 구문*을 지불하기 위해 집주름* 영감을 만난다.

“선생님, 이러지 마시구 좀 더 생각해 주셔야죠.”
하는 것이었다.

“그만하든 되디 않습니까?”

“선생님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신 집이야 그저 은으셨죠. 어제두 요 뒤에 집 매매가 있었는데 매 칸에 꼭꼭 일만 오천 원씩에 팔렸죠. 그런 데 비기면 그저지 뭐니까. 거 다 선생님 복이시지만,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 싸게 사셨다는 것두 생각하셔야죠. 그리구 전에두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두 일이 성사만 되게 허느라구 저편에서는 일 전 한 푼 못 받았습죠.

[A] 그뿐인가요, 전재민*으루 오신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록 허느라구 셋방 사람들 방 내는 덴 얼마나 또 속을 썩었다구요. 선생님두 그날 같이 가셨었으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하루에두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았는지 모르죠. 증말 이번에 학질 났습니다, 학질 났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절대루 셋방 사람들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다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록 허기 위해 헌 게 아납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생각해 주셔야 험죠.”

셋방 사람들 내보내는 데 힘들었다는 것은 집주름 영감의 말대로 그렇다 해도, 저편 집주인의 구문은 물론 셋방 사람들 방 얻어 내보내 준 샅까지 모두 두갑이의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찌됐건 현세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우린 전재민이 아니웬까?”

“그런 말씀들..... 어디 전재민이구 전재민 아니구가 있나요. 선생님 곁은 이현테 비기면 우리가 전재민이죠. 수다한 식솔에, 식구가 자그만치 열넷이랍니다. 버는 사람이라군 이 늙은 것 혼자구 그나마 조금씩 보태든 아들 녀석은 턱 알아놓지를 앓았수. 그런데다 엇그젠 또 며늘애가 몸꺼지 풀어 났으니, 그래 우리 성한 사람이야 어쨌건 앓는 사람 죽술이나 허구 애어미 미역국이나 끓여 먹여야 허잖겠수? 선생님 그러시지 마시구 더 좀 생각해 주십쇼.”

그러는 늙은 집주름의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가 되고 눈도 충혈이 돼 있었다.

현세는 문득 자기네도 미역 이파리나 사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현세는 이 늙은 집주름에게 이번 집 매매의 내막을 톡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세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경황도 경황이러니와 우선 그럴 기운이 없다는 걸 느꼈다.

현세가 그냥 걷기 시작하니깐 집주름 영감은 다급하게,

“아니 선생님, 다른 건 다 그만두구 보통 구문대루 일 푼만

친대두 천 원이면 십만 원에 대한 구문밖엔 더 안 되지 않수? 어디 그래서야 되나요.”

하고 수표를 도로 돌려주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세는 두갑이가 말한 찰거머리라는 말과 잡아멜 적에는 딱 잡아떼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으나 그보다도 이제는 더 서서 말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걷기만 했다. 이 현세의 태도가 늙은 집주름에게는 또 혹시 수표를 내준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갈 것같이 보였던지 탄원하는 어조로,

“그럼 선생님 다시 잘 생각해셔서 처분해 주십쇼. 그럼 조심해 가지우.”

하면서 꾸벅꾸벅 절을 했다.

푼 구름이 걷힌 하늘 아래서 현세는 이제는 다리만 허청거릴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아까보다 아주 흐리어졌다. 눈을 가느스름히 뜨면 좀 낮게 보이지만 그렇게 눈을 가느스름하게 하면 그러지 않아도 자꾸 들어만 가는 눈이 절로 찌뿌득하니 감기어지며 쓰린 눈물이 내배는 것이었다.

(중략)

“그런데 말야, 자네에게 미안한 말 하나 하게 됐네.”

한다.

현세는 왜 그런지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저, 다른 게 아니구 말야, 집권이 자기네가 방을 다 써야 될 일이 생겼다누만.”

현세는 종내 가슴이 철렁 무너앉을밖에 없었다.

두갑이는 바지 뒤 포켓에서 십 원짜리 한 묶음을 꺼내 현세 앞에 놓으며,

“그래 미안하다구 하든서 이걸 보내데. 정말 안됐네. 좋은 일 하려다 되레 자네한테 원망 듣게 됐어.”

그리고는 살피듯이 현세를 한 번 바라다보고 나서,

[B] “글쎄 첨엔 단돈 오백 원을 내놓지 않겠어? 그래 내 고향을 질렀지. 그 사람이 돈이나 오백 원 바래구 그런 송한 광대놀음 할 사람인 줄 아느냐구. 당신 눈에는 오백 원이 대단해 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전재민이라두 이런 돈 없이두 사는 사람이라구 해 줬지. 그랬더니 오백 원을 더 내놓두만. 서울깍쟁이라더니 정말.....”

사뭇 분개해 하는 말투요 표정이었다.

현세는 또 이 두갑이의 분개해 하는 말투와 표정과와는 달리 가슴속 한가운데서 누구에게라 없이 악이 머리를 들고 일어남을 느꼈다. 그것은 뱀같이 독이 오른 대가리였다.

“하기야 요즘 아무리 돈 가치가 없대두 천 원이든 적잖은 돈이지. 그리구 말야, 자네 방 문젠 내 또 알아봄세. 발 벗구 나서든 그까짓 방 한 칸쯤 문젠가. 내 꼭 책임지지. 아예 이번 집에 못 가게 된 거 서운하게 생각 말라구. 되레 잘되는 일인지두 몰라. 교통두 불편하구 더구나 요새 그 집권은 돈냥이나 버니까 뭇 부족할 것 없이 들여다 먹는데 말야, 한집에서 그 걸 보구 어떻게 견디나. 내 자네 있기 존 방 하나 구해 주지.”

현세의 악은 이제야 분명히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이 두갑이에게 향해짐을 느꼈다. 그저 이놈의 우뚝한 코를 평안도식으로 한 대 지끈!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두갑이가 뺨뺨을 현세 앞으로 내밀더니 돈 묶음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한 편 끝을 몰아 쥐었다가 펠릭펠릭 놓아 주면서,

“요새 십 원짜리 2호에 가짜 돈이 많다데. 그래서 여긴 2호 짜린 한 장두 받아 오지 않았지.”

그러는 두갑이의 두꺼비 입에서는 또 불고기와 소주와 마늘을 먹은 뒤에 나는 냄새가 풍기어 왔다.

현세는 종내 이 두갑이의 입김에 못 견디어 도망이나 하듯

국어 영역

이 그곳을 나오고 말았다. 저도 모르는 새 돈 묶음만은 집어 권 채. 두갑이의, 자기는 이 다방에만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만나자는 말을 먼 메아리처럼 등 뒤로 들으면서.

- 황순원, 「두꺼비」 -

* 구문: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집주름: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흥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전재민: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

1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시대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에는 모두 현세를 위해 행한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 ② [A], [B]에는 모두 자신과 현세가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 ③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 ⑤ [B]와 달리 [A]에는 현세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표현되어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현세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 일대를 떠돌다 해방 이후 큰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전재민이다. 해방 후 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재민들은 동포들에게조차 이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궁핍하고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작품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덕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 ①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려 했던 현세의 고뇌에 찬 '눈물'을 통해 도덕이 무너진 혼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② 자신의 '악'이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일 뿐임을 깨닫는 현세에게서 당대 현실 속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전재민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③ 두갑이에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돈 묶음만은 집어 권 채' 자리를 떠나는 현세에게서 전재민의 궁핍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④ '우린 전재민이 아니겠냐?'라는 현세의 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동포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전재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자신의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처지의 '셋방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을 한 현세에게서 도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설화 속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대상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우리 전래 동요에서는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비는 등 두꺼비를 기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꺼비 이미지를 변형하여 '두갑이'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 ① 설화의 두꺼비가 강자 앞에서 나약했던 것처럼, 윗글에서도 두갑이를 집주름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것으로 그려냈군.
- ② 설화에서 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과 달리, 윗글에서는 현세가 두갑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구성했군.
- ③ 설화와 전래 동요에 두꺼비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윗글에서도 독자들이 두갑이에게 희망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했군.
- ④ 설화에서 두꺼비가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진 것과는 달리, 윗글에서 현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두갑이가 이용했을 뿐임을 깨닫는 것으로 설정했군.
- ⑤ 전래 동요에서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기원한 것처럼, 윗글에서도 현세는 두갑이가 방을 얻어 주리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으로 구현했군.

14.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주름 영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세는 기진맥진(氣盡脈盡)해 있군.
- ② 현세는 두갑이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 ③ 집주름 영감은 현세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 애걸복걸(哀乞伏乞)하고 있군.
- ④ 집주름 영감의 말에 나타난 집주름 영감의 집안 상황은 가히 설상가상(雪上加霜)이군.
- ⑤ 두갑이는 현세에게 자신이 나중에 방을 얻어 주겠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군.

해설

②③①④③
 ⑤①②⑤③
 ①①④②

[1~2] (과학) 노태희 외, '화학II'

이 글은 유리관을 액체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높이의 변화와 표면의 모양을 바탕으로 액체의 응집력과 부착력, 표면 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액체 표면의 입자들은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만 인력이 작용한다.

2.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보다 깨끗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깨끗한 유리 표면에 달라붙는 물의 입자 수가 많아져서 넓게 퍼진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3~6] (인문) 이정모 외, '인지 심리학'

이 글은 개념과 범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개념이 범주화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범주화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범주화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② 범주화가 위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내포와 외연의 의미가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청소년들'은 그림 속 대상을 범주화하여 외웠다. 이에 대해 제시된 그림 속 각각의 대상이 지닌 독특한 특성에 주목하여 외웠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는 거미가 곤충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거미와 곤충이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③ '유아들'은 각각의 그림을 따로따로 외우기 때문에 그림이 많아지면 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적으로 이해한다.

어류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가미로 호흡한다'이고, 잉어는 어류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㉔의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것은 어류의 내포에 해당한다. ⑤에서 '잉어'는 '어류'의 상위 범주가 아니라 하위 범주이다.

6.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축적'은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이라는 뜻이다.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김.'은 '보존'의 의미에 해당한다.

[7~9] (현대시) (가) 김광균, '향수' / (나) 나태주,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가) 김광균, '향수'

저물어 가는 '도시의 옥상' 위에서 고향과 힘들게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등의 정서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 나태주,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대숲바람 소리'를 매개로 「심청전」과 화자의 어린 시절을 연상하여, 힘겨웠던 시절에도 희망이 존재했음을 발견하며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는 작품이다.

7.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화자는 '지나가'는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를 바라보며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화자의 어린 시절을 연상하고 있다.

8. [출제의도] 내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한 줄기 황망한 기적'은 매우 빠르게 사라지는 기적 소리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것 자체가 고향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낮은 비오름'은 고향의 바람 소리를 비유한 것이지 실제로 화자가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향에 대한 '서러움'을 자아내는 것은 '바람 소리'이다.

9.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이 시의 기본적인 발상은 '대숲바람 소리'를 매개로 화자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에 외적 소재인 「심청전」의 모티프를 접목하여 '심청'을 통해 화자의 힘겨웠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심청'이 지녔던 희망이 자신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이 '그 햇살이' '다시 눈트'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햇살'은 3연에서 다시 '발가벗은 햇살'로 확장되면서 어린 날의 순수와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③ 외적 소재가 갖는 중요한 기능은 소재를 통해 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나)에서 '심청'의 이야기에 화자의 과거를 겹쳐 놓음으로써, 독자는 화자의 상황을 친숙하면서도 심도 있게 헤아릴 수 있게 된다.

[10~14] (현대소설) 황순원, '두꺼비'

'두꺼비'는 해방 직후 고국에 정착을 기대하며 서울로 온 전제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당대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10.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현세에 초점을 맞추어 현세와 집주름 영감, 현세와 두갑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현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1.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한다.

집주름 영감은 [A]에서 현세가 빨리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셋방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갑이는 [B]에서 자신이 단돈 오백 원을 내놓은 집주름에게 고향을 질러 돈을 더 받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현세가 흘린 '눈물'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 전반에 대한 슬픔 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세가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13. [출제의도] 작가의 의도와 관련지어 감상한다.

두꺼비 설화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는 동물이지만 이 글에서 두갑이는 현세에게 약속한 방을 얻어주지 않는 부정적 인물이다. 이러한 두갑이를 통해 설화 속 두꺼비와 같은 인물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비정한 현실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이라는 의미이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갑이가 자신을 이용했음을 깨닫는 현세의 모습에서 분노를 읽어낼 수는 있어도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기는 어렵다.